

세계적 양산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탄력적인 그린피 시스템 운영

- 인터넷회원 예약시
- 평일 최대 3만원, 주말 최대 5만원까지 할인가능
-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주영-영록 쌍포로 베이징행 뚫는다

오늘밤 7시 우즈베크전 투톱 낙점



(박주영)

올림픽축구 아시아 최종 예선 B조 5차전

6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의 갈림길에 선 올림픽축구대표팀이 17일 오후 7시(이하 한국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센트럴 아미 스타디움에서 중앙아시아의 무시할 수 없는 복병 우즈베키스탄과 2008 베이징올림픽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B조 5차전 원정경기(MBC TV 생중계)를 치른다. 3승1무로 조 선두를 지키고 있지만 2위 바레인(3승1패)에 승점 1점 차로 턱밑까지 추격을 허용한 테라 태극전사들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번 경기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격파의 선봉에는 박주영(서울)-신영록(수원) 투톱이 나선 전망이다.



박성화 감독은 수비와 미드필더진 운용에 대한 구상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박주영의 파트너로 신영록과 이상호(울산), 김승용(광주) 중 누구를 선택할 지 고민해 왔다.

박 감독은 지난 15일 전술 훈련에서도 박주영을 불박이로 놓고 이상호와 신영록을 번갈아 투입해 이들의 호흡을 시험했다. 전형적인 '타깃맨' 스타일인 신영록을 전방에 배치하고 박주영을 바로 아래에 세워 공격을 풀어 가려는 쪽에 무게를 둔 모습이다.

박주영과 신영록 모두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다. 박주영에게 우즈베키스탄은 A매치 첫 골 맛을 보게 한 상대다. A매치 데뷔전이기도 했던 2005년 6월 타슈켄트 파크타코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06 독일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에서 0-1로 끌려가며 패색이 짙던 종료 직전 동점골을 터뜨려 극적으로 무승부를 만들 어냈다.

신영록도 2004년 10월 말레이시아에서 치른 아시아청소년(19세 이하) 선수권대회 8강 우즈베키스탄전 연장전에서 그림 같은 오버헤드킥으로 결승골을 뽑아내며 '스타 탄생'을 일했다.

'멀티 플레이어' 이상호와 최근 꾸준히 공격 포인트를 쌓아온 김승용은 상황에 따라 조커로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좌우 날개의 임무는 이근호(대구)와 이청용(서울)이 맡는다. 경쟁이 치열했던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는 기성용(서울)과 오장은(울산)이 낙점됐다.

포백 수비 라인에 김창수(대전)-김진규(서울)-강민수(전남)-신광호(포항)로 꾸려지고, 골문은 프로축구 포항 스틸러스를 K-리그 우승으로 이끈 정성룡(포항)이 지킨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신영록)

2천5백억 준다

A-로드리게스, 양키스와 계약

미국프로야구 '거포' 알렉스 로드리게스(32)가 또 한번 몸값 대박을 터뜨렸다.

미국스포츠전문 채널인 ESPN은 16일(한국시간) 로드리게스가 올해 뛰었던 뉴욕 양키스와 10년 간 총 2억7천500만달러(한화 2천529억원 상당) 계약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제는 로드리게스가 2001년 텍사스 레인저스와 계약했던 10년 간 2억5천200만달러를 넘어선 역대 타자 와 투수를 통틀어 최장기이자 최고 몸값이다.

1994년 시애틀 매리너스 유니폼을 입고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로드리게스는 올해 양키스로 3루수로 활약하며 아메리칸리그에서 홈런(54개)과 타점(156개) 각 1위를 차지한 뒤 FA를 선언했다.

역대 통산 홈런 부문 518개로 전체 17위에 올라 있고 14년 통산 타율 0.314를 기록했다.

로드리게스는 이와 함께 1996년 리그 타격왕(타율 0.358)과 올해까지 5차례 홈런왕에 올랐다. 또 2003년과 2005년에는 리그 최우수선수(MVP)로 뽑혔고 올해에도 개인 통산 9번째 실버 슬러거상을 수상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807억원 줄게

헬시, 호나우지뉴에 손짓

유럽축구 리그가 A매치로 잠시 쉬게 된 이번 주 뉴스 메이커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헬시의 구단주이자 러시아 석유 재벌 로만 아브라모비치다.

16일(한국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아브라모비치는 FC 바르셀로나(스페인)에서 뛰는 브라질 대표팀 간판 호나우지뉴(27)에게 이적료 6천만유로(807억1천980만원)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스페인 카탈루냐 지역 스포츠 전문지가 보도했다.

호나우지뉴의 소속 팀 바르셀로나와 긴밀한 유대 관계가 있는 '데일리 스포르트'는 아브라모비치가 다음 시즌에 대비한 최대 목표로 '호나우지뉴 영입 프로젝트'를 세웠고 그를 데려온다면 모든 면에서 엄청난 사건이 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헬시에서 뛰고 있는 우크라이나산 득점 기계 안드리 셉첸코의 이적료가 3천100만파운드(584억원)였는데 호나우지뉴는 여기에 40% 쯤 더 얹어주기로 한 것이다.

'마린보이' 박태환 세번째 3관왕 오를까

독일 경영월드컵 6차 자유형 200m·400m·1,500m 출전

지치지 않는 괴력으로 국제수영연맹(FINA) 2007 경영월드컵(소프트 코스) 시리즈에서 거침없이 두 차례 연속 3관왕에 오른 '마린보이' 박태환(18·경고)이 독일 베를린으로 옮겨 세번째 3관왕에 도전한다.

박태환은 17일(이하 한국시간)부터 이틀 동안 베를린 SSE 수영장에서 펼쳐지는 경영월드컵 6차 시리즈에 나선다. 도전 종목은 자유형 200m와 400m, 1,500m로 같다.

관련 포인트는 세가지다. 첫번째는 지난 2~3일 호주 시드니 3차 시리즈와 13~15일 스웨덴 스톡홀름 5차 시리즈에서 연속 3관왕을 차지한 박태환이 이번에도 도전 종목에서 모두 금메달을 차지할 수 있다.

박태환은 스톡홀름에서 뚜렷한 라이벌 없이 레이스를 펼친 덕분에 세 종목 모두 독주 체제를 유지하다 심하게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이 유럽에서 열리는 마지막 대회이니만큼 박태환의 라이벌인 강자들이 대거 출전할 가능성이 있다.

두번째는 자신의 기록을 얼마나 단축시키느냐다. 경영월드컵 출전 목표를 지구별 보완에 두고 있는 박태환은 시드니와 스톡홀름을 거치면서 뚜렷한 성과를 냈다.

자유형 1,500m의 경우 시드니에서는 14분49초94로 저조했던 기록을 스톡홀름에서 14분36초42로 13초 이상 줄였다. 박태환의 최고 기록은 작년 4월 중국 상하이 세계소프트코스선수권대회에서 작성한 14분33초28인데 이를 넘어서는 것이 베를린 대회 목표다.

자유형 400m와 200m의 경우 시드니에서 각각 3분39초99, 1분43



초38로 이미 자신의 기록을 줄였는데 베를린에서 이를 더욱 단축할 수 있을지 관심이 있다.

스톡홀름에서 1,500m 레이스를 펼친 지 5분 만에 200m 우승까지 차지한 무시무시한 회복능력을 재연할 수 있을 지도 기대된다. 이번 베를린 시리즈 종목별 시간표는 스톡홀름 때와 같다. 즉 박태환은 첫날인 17일 12번째로 진행되는 자유형 400m 예선과 결승에 나선다.

문제는 둘째날이다. 18일에는 첫번째 종목이 남자 자유형 1,500m 결승이고 여자 자유형 100m 결승이 이어진 뒤 곧바로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이 펼쳐진다. 또 5분 가량 숨을 고른 뒤 200m 금메달 사냥에 나서야 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흡련왕' 본즈 감옥 가나

금지약물 복용 위증 혐의 기소

금지약물 스테로이드 복용설에 휩싸여 있는 미국프로야구 홈런왕 배리 본즈(43)가 결국 이과 관련한 위증 및 재판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AP통신 등 미국 언론은 16일(한국시간) 본즈가 사법 당국으로부터 기소를 당했고 법원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명예의 전당' 대신 감옥에 가야할지 모른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본즈는 그동안 메이저리그에 만연한 스테로이드 복용 실태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만든 '발코 스탠들'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

나 2003년 연방 대배심에서 "스테로이드가 함유된 물질인 줄 모르고 사용했다"고 말해 위증 의혹을 받아왔다.

재판부가 본즈가 범한 4건의 위증과 1건의 재판 방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 그는 최소 30년형에 처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선수 생활에 있어 최대 위기가 닥친 셈이다.

기소장은 '본즈와 다른 선수들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에 양성 반응을 보였고 다른 금지 약물을 복용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적시했다.

피소 사실을 언론을 통해 접한 본즈의 변호사들은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변호사 존 버리스는 "매우 놀랐으며 사정 당국이 과거에 입수하지 못한 어떤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다는 궁극하다"고 말했다.

본즈는 다음달 8일 샌프란시스코 순회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17일(토)
- ▲대학장사 씨름대회(13:00-MBC-SPN)
- ▲삼남매 KBC 여성골프대회(13:10-KBC)
- ▲프로농구(KT&G·동부)(14:50-X-

- ports), <KTF·LG>(14:50-SBS스포츠)
- ▲2008 베이징올림픽 축구 아시아지역 최종예선(대한민국:우즈베키스탄)(18:40-MBC·Xports·SBS스포츠)
- ▲FINA 월드컵 수영 독일대회(23:00-MBCESP)
- 18일(일)
- ▲LPGA ADT챔피언십 3R(04:00-SBS골프)

- ▲2010 월드컵 남미예선(아르헨티나:볼리비아)(03:50-SBS스포츠)
- ▲NBA <피닉스:휴스턴>(10:30-SBS스포츠)
- ▲홍콩 오픈 골프 최종R(16:30-MBC-SPN)
- ▲여자프로농구 <금호생명:우리은행>(16:50-SBS스포츠)
- ▲FINA 월드컵 수영 독일대회(23:00-MBCESP)



(김미현)

김미현·김초롱 출발 좋다

LPGA 최종전 ADT챔피언십 1R 공동 선두

우승 상금 100만달러가 걸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최종전 ADT챔피언십 첫날 김미현(30·KTF)과 김초롱(23)이 공동 선두로 나섰다.

김미현은 16일(한국시간)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의 트립프린터내셔널 골프장(파72·6천538야드)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5개를 골라내며 5언더파 67타를 쳤다.

재미교포 김초롱도 버디 3개에 이글 1개를 보태 김미현과 함께 공동 1위로 대회 첫 날을 마쳤다.

올 시즌 두 번째 우승을 노리는 김미현은 12차례 티샷을 페어웨이 안착시키고 90%가 넘는 그린적중률을 기록하는 정교한 플레이를 펼쳤다.

전반에만 5타를 줄인 김미현은 후반에 단 1개의 버디도 추가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12번 홀까지 버디 3개를 잡아낸 김초롱은 494야드 파5홀인 15번 홀에서 2타 만에 볼을 그린에 올린 뒤 7.6m짜리 이글 퍼트를 성공시켜 공동 선두로 뛰어 올랐다.

하지만 이 대회의 독특한 경기 방식 때문에 첫날 1위가 큰 의미는 없다. 32명이 출전한 이 대회는 1, 2라운드를 치

른 뒤 절반을 가려내고 3라운드부터는 16명의 선수가 이진 라운드 성적에 지우고 새롭게 시작한다.

8명만이 남게 되는 최종 4라운드 이전의 성적을 모두 지우고 대결을 펼친다. 3라운드 선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4라운드 때 티타임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올 시즌 '멀티플 위너'로 등극한 폴라 크리머(미국·2승)가 4언더파 68타로 줄리 잉스터(미국)와 함께 공동 3위에 올랐고 새로운 여자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는 2언더파 70타, 7위로 첫날을 시작했다.

특히 오초아는 16번 홀까지 6언더파를 치며 선두를 달리다 17번 홀(파3)에서 티샷을 물에 빠뜨리며 고전하다. 한 홀에서 4타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순위가 크게 떨어졌다.

안시현(23)과 이정연(28), 이선화(21·CJ)가 2오버파 74타로 재기를 노리는 안나카 소렌스탐(스웨덴)과 함께 공동 14위에 올랐지만 명예의 전당 회원 박세리(30·CJ)는 5오버파 77타를 쳐 공동 25위로 밀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김초롱)